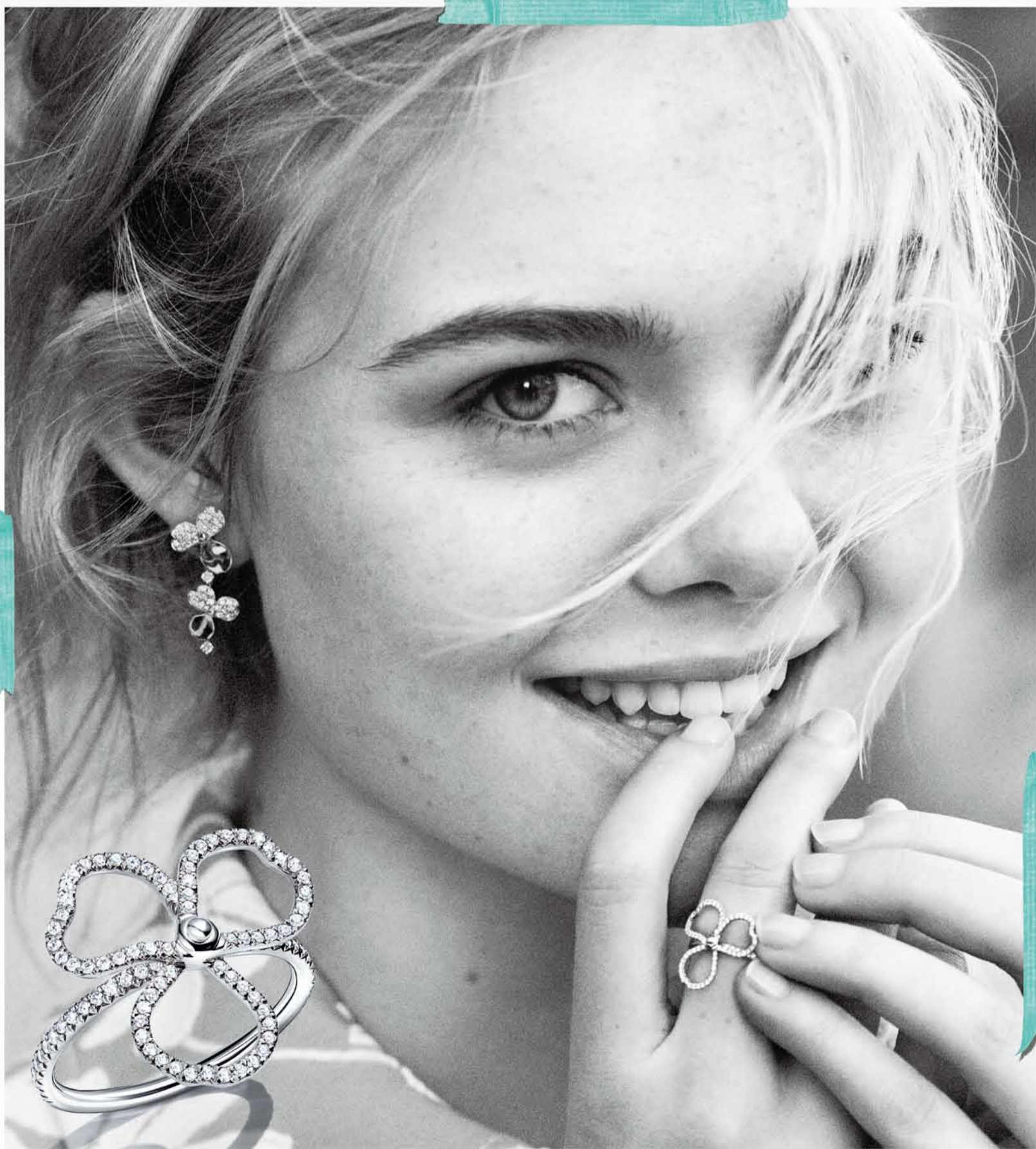


# Style 1 조선일보

DECEMBER 2018  
vol.182



# TIFFANY & CO



# SUBLIMAGE

L'ESSENCE FONDAMENTALE

# CHANEL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궁극의 피부 강화 에센스

생명력을 불어넣는 궁극의 피부 강화 에센스, 샤넬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보석과도 같은 특별한 케어 기능을 가진 식물, 솔리다고(SOLIDAGO) 추출물로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되고, 샤넬의 상징적 식물인 바닐라 플래니폴리아 워터의 향산화 효과로, 지친 피부는 생기를 되찾습니다. 속부터 강화된 탄력과 생기있게 빛나는 궁극의 피부를 경험하세요. 샤넬 수블리마지 - 다시 찾는 내 안의 아름다움.





**BVLGARI**  
ROMA







*Breguet*  
Depuis 1775

Breguet La Marine  
Chronograph 5527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Alhambra, celebrating luck since 1968

Discover the film on [vancleefarpels.com](http://vancleefarpels.com)

신세계 강남점 - 본점 - 센텀시티 - 대구점  
갤러리아 EAST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00798-852-16123





53



48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18  
 182

TIFFANY & CO

우리 1백5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뉴욕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그리고 클래식함을 넘어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지닌 브랜드로 부각시키고 있는 티파니의 새로운 얼굴, 배우 엘리 패싱.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지닌 그녀가 착용한 제품은 최근 가장 사랑받는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컬렉션의 디자인 몬트 클라스터 드림 이어링과 다이아몬드 오픈 플라워 링이다. 문의 02-547-9488



36



18

- 22 **피로 시대의 미학,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어느새 한 해의 끝 지막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도 일이 무척이나 많은 해였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슈에 필요 이상으로 시달리고 지친 우리에게 일상에서 위로라도 건네듯 '열심히 하지 마라', '굳이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눈에 띈다.
- 28 **GIFT GUIDE THE FASHION**
- 30 **GIFT GUIDE THE BEAUTY & LIVING**
- 32 **GIFT GUIDE THE JEWEL**
- 34 **GIFT GUIDE THE WATCH**
- 35 **DEEP IN COLOR** 감각적인 텍스처와 대담한 컬러가 돋보이는 2018 겨울 뷰티 팔레트.
- 36 **CRUSH ON YOU**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한 매력, 그리고 주얼리 그 이상의 존재감, 사벨 화인 주얼리의 코코 크러쉬.
- 42 **SPARKLE AND SHINE** 마이클 코어스의 윌트니(Whitney) 백이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눈부시게 변신했다.
- 43 **ALL I WANT FOR CHRISTMAS IS...** 티파니의 뮤즈 캄타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스러운 소원을 전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티파니의 페이퍼 플라워를 선물 받고 싶어요."
- 44 **PERFECTION OF TIME** 1백50여년만 긴 역사 동안 WC가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자 브랜드 정신이기도 한 두 단어, 기술력과 디자인을 잘 나타내는 시계가 있다. 바로 포르투가져 퍼페추얼 캘린더다.
- 46 **A FEAST FOR YOUR EYES** 홀리데이 시즌마다 특별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MCM. 올해는 젊고 합한 부르주아의 호화롭고 프라이빗한 파티로 우리를 초대한다.
- 48 **A TALE OF LUXURY** 진정한 럭셔리 뷰티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라프레리의 40년 역사, 그리고 얼마 전 공개한 브랜드 영상 'A Tale of Luxury'의 특별한 제작 스토리를 살펴본다.
- 49 **MAGIC IN YOUR LIFE**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많은 모임에서 빛날, 스와로브스키가 제안하는 마법 같은 스타일링 팁들.
- 50 **SPECIAL GIFT FOR YOU** 세상에 하나뿐인, 그래서 더욱 잊지 못할 선물을 위해 불리 1803이 제안하는 특별한 선물 준비법.
- 52 **A GREAT CHALLENGE** 몽블랑 코리아 최초의 칼라바레이이션은 브랜드 모델이자 말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 박서준과 함께했다. 몽블랑×PSJ 캡슐 컬렉션은 매종의 심플과도 같은 블랙 앤드 화이트 컬러의 가족 제품에 편안한 도트 패턴을 얹어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 53 **WELCOME TO THE ART: EON** 좋은 디자인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쁨이라고 했던가. 특히 우리에게 일상과 함께하는 기계 미학의 결정체인 자동차 세계에서 디자인의 '울림'은 남다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우아한 카리스마가 시선을 절로 사로잡는 폭스바겐의 새로운 아키텍처 아테온(The new Arteon)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세단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출중한 디자인 미학을 뽐낸다. 차,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표방하는 이 플래그십 세단의 매혹을 몸소 느껴보고 싶다면 다채로운 스토리를 품은 브랜드 공간이자 팝업 스토어인 'The Art: eon'이 기다리고 있다.

Northampton, Church's Factory, June 2018



church-footwear.com

# Style **조선일보**

Issue.182 December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티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Church's**  
 English shoes





포노메타 차별감

**Jewel DROP & DANGLE**

차분한 모노톤의 커다랗고 긴 이어링.

(위부터 시계 방향) 크리стал 장식 이어링 50만원대 **미유미유**, 진주가 달린 이모르타르드 이어링 50만원대 **골드듀**, 로고 펜던트 롱 체인 이어링 39만원대 **벤디**, 7줄과 크리стал로 장식한 매달 글림은 이어링 1백50만원대 **사슬**, 리본 모티브에 파베 크리стал을 사용한 드롭 이어링 1605만원 **스외로브스키**, 투명한 크리стал로 이루어진 클립 이어링 21만5천원 **스외로브스키**, 2원 에디션 **남자현**



**Beauty WINTER COMFORT**

수은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한 해 동안 쌓인 피로 때문인지 연말이 되면 따끈한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마사지를 받는 등 피로를 푸는 시간이 짧아진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신선해 휴식을 선사할 힐링 트리트먼트**. 한 해를 보내며 나를 위해 조금은 호사스러운 휴식을 계획 중이 라면 **어?** 소개하는 네 곳의 SPA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보여보자.

이름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 이슬 매장 중 선별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이슬 페이스얼 어포인 트먼트 중 **디톡스 어뉴**다. 이슬 시운즈 한남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맑은 클린장으로 피부 부를 정돈하고 묵은 각질을 제거해 매끄러운 피부를 되찾아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페이스얼 마사지로 피부 속까지 영양을 더해주고, 보태니컬 성분과 마스코 퍼부를 진정시켜 스트레스를 풀어 준다. 울트라 향기, 분유까지 완벽하게 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SPA 룸에서 진행하기에 더욱 특별한 이 프로그램의 가격은 60분에 13015천원, 75분에 16만원이다. 문의 02-749-1987 **2관 스파 신라** 장충점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자친 피부에 활력을 더하는 **이베이 로얄 하이 리피어 트리트먼트**다. 자친과 탄력 떨어진 피부에 활력을 더해줄 피부 힐링 트리트먼트로, 리프스 피부다를 이용해 피 붓기를 정돈하고 피부 속 노폐물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해, 식물 혼합물을 사용한 미세 박피술로 피부를 정화하고 피부 효과를 더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런 다음 이베이 로얄 유스 세럼으로 주름을 진중 관리한 후, 스킨케어 단계로 거처 링을 스터더를 이용해 탄력 넘치는 피부를 완성한다. 받고 나면 피부가 힐링되는 것은 물론 몇 년은 젊어진 듯 쫄쫄해지는 이베이 로얄 하이 리피어 트리트먼트는 90분간 진행되며 가격은 35만3천원이다. 문의 02-2230-1167 **리우에서는** 향긋한 입욕제를 문 욕조에서 한 해의 피로를 푸는 **테일즈 오브 베스**를 추천한다. 의자에 앉아 머리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트리트먼트는 자친이 같은 공간이 흘러나오는 공간에서 입욕을 즐기는 특별한 코스를 거친다. 그런 다음에는 베개를 안고 옆으로 누워 따뜻한 오일을 사용한 진신 마사지로 상신의 피로를 푸는 동시에 오 일의 영양 성분을 피부 속까지 흡수시킨다. 75분간의 트리트먼트가 끝나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며 상신의 편안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은 20만원이다. 문의 02-790-7561 **달방 인스티튜트 스파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마사지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리파리제 엔드 트리트먼트**를 추천한다. 온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동시에 온온한 아로마 향으로 오감을 만족 시키는 이 프로그램은 얼굴 관리와 함께 진신 케어 또는 등 집중 관리를 선택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몸의 긴장과 피로를 풀고 활력을 더해주는 이 트리트먼트는 90분 동안 진행되며, 가격은 18만원이다. 문의 02-542-4333 **3관 에디션 스파**

**Focus HOMAGE TO THE ORIGINALITY**

25년 전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을 선보였을 때 오메가는 탄탈럼이라는 매우 독특한 금속을 소개하며 또 하나의 레전드를 만들어냈다. 탄탈럼 고유의 컬러는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버 클러스프 등 전동기를 위한 프로페셔널 디테일을 갖춘 새로운 시계 디자인과 완벽하게 어울 리며 완벽한 타임피스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올해 오메가는 탄탈럼을 적용한 특별한 모델 2천 5백 피스를 한정 생산해 1993년 처음으로 소개한 오리지널 모델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탄탈럼을 사용해 시계에 유니크한 개성을 불어넣었고, 새로운 다이버 300M 라인에 칼렉터 피스 를 추가했다. 42mm 사이즈의 리미티드 에디션은 새로운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칼렉션의 변화 코 드를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 원뿔 형태의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와 가장자리를 파도 모티브로 장식한 케 이스 백, 그리고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케이스에 좀 더 완벽하게 통합된 형태의 브레이슬릿 등 이 그것이다. 이번 모델에서는 탄탈럼을 브레이슬릿 미들 링크뿐 아니라 베젤 베이스에도 사용했다. 탄탈 럼의 불루빛을 띠는 그레이 컬러가 브러싱 처리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소재에 적용한 그레이드 2 티타늄 소 재와 미세한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또 이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은 크라운, 베젤 링, 헬륨 이스케 이프 밸브, 브레이슬릿 링크와 핸즈에 18K 세드나(Sedna™) 골드를 가미했다. 시계를 뒤로 돌리면 씨마스터와 깊은 인연이 있는 아이코닉한 오메가의 씨호 스 이미지를 담은 투명한 케이 스 백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파 이어 크리стал을 통해 스위스 연방계측학회(METAS)가 인증 한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 8806도 감상할 수 있다. 끝 없이 진화하는 타임월드의 세 계, 그 중심에 있는 오메가의 씨 마스터 다이버는 또다른 전설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열린 오메가 다이빙 시계의 레전드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칼렉션 전시.

**INSIGHT**

편안함이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Living 스웨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라니트(GRANIT), 서울에 상륙하다**

스칸디나비아 감성을 담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라 니트(GRANIT)가 서울 가로수길에 터를 잡았다. 패션 업계에 몸담았던 2명의 친구가 손잡고 1996년 스톡홀름 외곽 지역인 손드비베리(Sundbyberg)의 한 가정 집 주방에서 탄생시킨 그라니트는 북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는 인기 브랜드로, 가 로수길 매장은 아시아 최초다. 일상에서 보다 간결하고 긴소한 모습으로 물건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만큼 그레이, 블랙, 화이트 등 뉴트럴 색조와 합리적인 가격대의 실용적인 상 품이 주를 이루며 주방, 인테리어, 가방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왔다. 가정집을 개조한 가로수길 매장은 북유럽 라이프스타일과 인테리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1층과 2 층은 그라니트의 단독 쇼핑 플레이스에 꾸몄는데, 그라니트의 대표 상품군은 물론이고 브랜드에서 강조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와 생산 방식,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케어(care) 상품군과 뷰티, 문구, 가방, 식품 등 국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별도로 제작한 다양한 PB 상품을 접할 수 있 다. 지하 1층에는 한남동의 맛난 카페로 유명한 아라비야(r. about) 카페가 자리해 고객들이 쇼핑과 더불어 새로운 카페 문화를 즐기고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인다. 또 18평 규모의 기든을 1층 입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방문 고객들이 자유롭게 셀러나 사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이다. 그라니트는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뿐만 아니라, 에이전시인 가로수길 2층에 숏스튜디오 운영하며, 삼성출산 온라인 쇼룸인 SSF를 에도 단독 물이 마련돼 있다. 공식 온라인몰 [www.granit.co.kr](http://www.granit.co.kr) 문의 02-541-0099 **에디션 고희연**



**Exhibition 렌즈를 통해 시를 쓰다, 이명호 개인전 (Nothing, But)**

회화와 사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작품 세계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 는 사진작가 이명호의 개인전 (Nothing, But)이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 삼청동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다. 갤러리 현대에서 5년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개인전으로, 넓은 발판 에 커다란 흰색 캔버스를 배경으로서 있는 나무(tree) 연작이 리드미컬한 시에 캔버스를 길게 펼 쳐놓은 '싱기루(Mirage)' 연작 같은 기존의 대표작과 더불어 작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다른 계 열의 신작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작품은 30여 점. 이번 신작은 Nothing, But이라는 제목에서 일부 양상 하듯이 캔버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서 있다. 아무것도 없지 않 으면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현실과 비현실, 그리고 그사이, 혹은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갤러리 현대 관계자는 "단지 구현된 가시적 이미지를 통한 인식 전환의 경험을 넘어 미처 구현되지 않은 비가시적 이미지로의 체험까지 이루어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직접 세계를 의미 있게 확장해나 가 고 있는 이명호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로미술관 등 국내 대표 미술관뿐 아 니라 역사적인 사진 컬렉션으로 유명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을 비롯해 정물 게티 미술관, 앙스트레르만 사진 미술관, 빌토리아 국립 미술관 등 세계 유수 기관에 소장돼 있다. 또 와인 브랜드 등 다양한 청초적 주제 의 함께하는 협업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문의 02-2287-3500 **에디션 고희연**

이명호 개인전 'Nothing, But'

**VOLVO S90**



**가장 스웨디시한 럭셔리**

간결한 디자인으로 당신의 첫인상을 남다르게 인텔리세이프 시스템이 당신의 주행을 안전하게 파일럿 어시스트 기술이 당신의 시간을 여유롭게 프리미엄 사운드가 당신의 감성까지 자유롭게

모든 면에서 당신을 향한 럭셔리 세단

**VOLVO S90**  
MADE BY SWEDEN



**5년/10만km 보증기간 연장 소모성 부품 무상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로 문의)

서울 동대문 02 2212 8855 대치 02 566 6080 서초 02 3486 2900 신사 02 515 9090 송파 02 413 0900 용산 02 794 1800 목동 02 2021 6789 인천 032 858 0777 경기 일산 031 906 6789 분당 031 707 2266 수원 031 216 6777 안양 031 385 6789 강원 원주 033 735 2900 대전 042 628 2200 충청 천안 041 569 2900 광주 062 372 3600 전라 전주 063 275 3600 대구 053 768 5588 **NEW** 울산 052 268 0900 경상 **NEW** 포항 054 278 7900 창원 055 714 8020 부산 해운대 051 714 7400 광안 051 759 1600 **고객센터 1588 1777**

볼보자동차 홈페이지 [www.volvocars.co.kr](http://www.volvocar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volvocarkorea](https://facebook.com/volvocarkore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volvocarkorea](https://instagram.com/volvocarkorea)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S90 T5(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1,756kg, 자동 8단) **복합연비** : 11.1km/l(도시연비 9.7km/l, 고속도로연비 13.4km/l) CO<sub>2</sub>배출량: 155g/km, 등급: 4등급 S90 D5(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미정, 자동 8단) **복합연비** 미정(도시연비 미정, 고속도로연비 미정) CO<sub>2</sub>배출량: 미정, 등급: 미정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태, 차량상태,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telliSafe(City Safety, Pedestrian Detection & Collision Warning with Full Auto Brake 등)는 동적 안전 시스템은 운 전자의 조치를 보조하기 위한 기술로서, 환경 및 조건에 따라서 작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주행 중에는 항상 운전자 본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지를 주행(Pilot Assist)은 운전자의 설정에 따른 차량의 주행 및 조향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로서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을 의미하 지 않으며, 환경 및 조건에 따라서 작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주행 중에는 항상 운전자 본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한 및 사안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or her  
**Selection**

대담한 색과 디테일, 이국적인 프린트만으로도 독보적인 파티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여기에 빛나는 주얼의 힘을 보태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스튜디오 디테일이 특장인 선글라스 88만원 루이 비통.

트윈드 재킷 3백10만원 자일 비티스타일리 by 한스타일.

볼스 50만원에 달하는 크리스탈을 자랑하는 크리스탈 클립 50만원 바버리.

황금과 크리스탈을 매치한 루이 로저 바비에.

크리스탈을 세팅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시계 40만원 칼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보석 바를 장식 레이다 벨벳 백 12.5x20cm 2백59만원 미우미우.

패션의 소재 재킷 패턴 필로스 가격 미정 바버리 크리스탈 장식

샤넬의 유망형 아스트레 이생 액세서리 컬렉션

볼리워 모터브 LV 원저 플러트 핏치 1백57만원 루이 비통.

구즈3인용 고급기 모티브 아방 2백50만원에 상 품방 by 안토니 바카펠로.

네타포르테 070-4618-4268  
아틀리에스외로브스키 1661-9060  
한스타일 02-517-4789  
루이 비통 02-3432-1854  
바버리 080-700-8800  
미우미우 02-3218-5320  
로저 바비에 02-6905-3370  
발렌티노 02-2015-4653  
자일비토 로시 02-000-0000  
드리스 반 노른 02-3479-1796  
칼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02-2143-1829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펠로 02-549-5741  
살비토레 페카기오 02-3430-7854  
미우미우 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깃털 장식의 자카드 스카트 1백65만원 드리스 반 노른.

윈드파킹 스웨터 1백만원 자일비토 로시.

장교한 시린 장식 원피스 5백9만원 발렌티노.



PARK SHINHYE

#BrillianceForAll  
SHOP THE NEW HOLIDAY

SWAROVSKI

SWAROVSKI

SWAROVSKI

SWAROVSKI.COM









# 피부에 차오르는 강력한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에너지

## NEW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셀렉트 마스크

**뉴트리라이트\*의 파이토 컬러 에너지**  
원료의 재배, 가공, 제품의 완성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뉴트리라이트\*의 파이토 컬러 보태니컬 성분\*\*이  
피부 깊숙이 본연의 파이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퍼스널라이즈드 맞춤 솔루션**  
기능에 따라 골라 쓰는 맞춤 제형 솔루션은 물론,  
특별함을 더하는 풍부한 아로마 향까지

**강력한 파이토 컬러의 힘을  
지금 경험해보세요**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생산해 뉴트리라이트 제품의 일부 원료로 사용하거나, 뉴트리라이트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원료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자사의 세계적인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일부 성분에 한함  
좌측 보태니컬 사진은 제품의 일부 함유된 원료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 ARTISTRY

## SIGNATURE SELECT™





# 피로 시대의 미학,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하루 이틀만 자리를 비워도 도대체 이슈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는 참 정신없이 돌아간다. 실제로 불과 며칠만 해외로 떠나 있어도 온갖 일이 터지고 새로운 화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공백 아닌 공백을 느낀 경험을 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면,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고 빠르게 전달되는 초연결 시대인 만큼 멀리 있어도 디지털 업데이트를 손쉽게 누릴 수 있지만, 그러느라 여전히 디지털 스트레스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심심할 틈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슈를 따라잡는 것만으로 피곤한 삶을 산다고도 할 수 있겠다. '호모 업데이트쿠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기든 정보든 이슈든 업데이트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업데이트 때문에 골절 짜증이 나면서도 그게 제때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소통이 차단되는 듯해 은근히 불안해지는 게 현대인의 현주소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네트워크 세상과 단절하면서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미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는 퇴근 후나 근무 외 시간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이미 법제화했거나 추진 중이다. 어떤 형태든 간에 '자발적 단절'을 실천하다 보면 정보 범람에 따른 피로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서 아무래도 더욱 두드러지게 된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요즘 출판계나 영화계를 수놓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보면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순수하게 만족을 느끼는 요소를 고민하고, 행복이나 꿈을 주변에서 발견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이나 평일 저녁과 주말은 오로지 취미 활동과 자기 계발로 시간을 보내는 '워라벨', 그리고 무엇인가 대단한 걸 이루거나 큰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맨찮아', 되도록 소유를 자제하고 가볍게 살자는 '미니멀 라이프' 같은 키워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 내 인생의 즐거움에 아깝없이 투자하지는 메시지를 담은 '올로' 트렌드는 과도한 소비로 연결되면서 여러모로 녹되지 않은 현실에 맞지 않기에 살짝 풀이 죽었다고도 한다. '올로 찾다가 꼴로 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 세대가 어때든 저마다 피곤한 삶의 무게

저성장 시대에 삶의 고단함을 호소하는 현상은 비단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어떤 기준에서는 저마다 힘든 구석은 있는 법. 젊은 층이 희망이 희박한 상황에서 냉소적, 허무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과 목표가 사그라든 중년층은 제2의 사춘기를 겪는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midlife crisis)'에 휩쓸려 힘들어한다. 특히 변화의 물결이 극심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듯 보인다.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완벽히 대비할 수도 없으므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해도 안정적이기는커녕 끝없이 공부하고 자기 계발에 나서야 하니 말이다. 고행화 시대의 노년층은 또 어떠한가? 은퇴 후 보낼 세월이 너무나 막연하고 길게 펼쳐질 수 있기에 설령 여유가 있다 해도 불안함을 느끼며 무위고와 고독사, '블막', '콘데' 같은 단어로 집약할 수 있는 연령 차별(ageism)로 괴로워하게 된다. 폐렴으로도 쉽게 사망하던 시대를 생각하면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버겁고 힘든 시대라니, 인간의 아이러니란 끝이 없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아직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있는 젊은 세대마저 '굳이 열심히 하지 말자', '멍취도 괜찮다'는 목소리에 위로받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다. '소확행'이라는 것도 장기간 지속된 경제 불황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큰 희망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도 만족하며 사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나 우리나라의 달관 세대를 그럴 듯하게 포장해 부르는 다른 이름 아니냐는, 한창 질주할 나이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되겠냐는 염려의 눈길이다. 또 누군가는 행복이 물질이나 성공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다는 소확행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태생적으로 포기할 게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른바 N포 세대는 애초에 누려본 것도 없는 처지에 "어차피 선택지가 소확행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소리도 한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지만 이미 태어났으므로 나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살자는 체면이 깔려 있다는 논리다.

## 행복이나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 현상에 대한 반작용?

소확행은 한국에서도 팬덤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무려 30년도 더 전에 쓴 수필 <광활한 섬의 오후>에 나온 단어다. 사실 이 책이 출간된 1986년을 되짚어 보면 일본 경기가 좋을 때라 상대적으로 풍요로웠기에 '저택' 속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랄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뜯어 먹는 것' 같은 묘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낭만적 표현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확행 열풍'이 단순한 허무주의의 발현은 아닌 듯하다. 그보다는 대단한 행복이나 크나큰 성공에 집착하는 인간의 과도한 집착과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작용이자 위로의 수단인 아닐까. 소확행을 활용하 마케팅 같

인생의 행복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도 '일이 무척이나 많은 해였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슈에 필요 이상으로 시달리고 지친 우리네 일상에서 위로라도 간네듯 열심히 하지 마라', '굳이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눈에 띈다. 연말연초에 어울릴 듯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찬 메시지가 아니라 말이다. 사실 현자는 삶에 완전하거나 절대적인 행복이란 게 있다는 '현상'에 속지 말라고, 일찍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는 것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해왔다. 조금은 더 나의 삶을 찾을 수 있는 2019년이기를.

은 반작용을 걱정하기에 앞서 이 개념이 탈출구가 딱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 구도와 디지털 노출에 따른 비교, 그리고 거대 담론에 지친 현대인에게 자신만의 진짜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듯 보인다. 사실 소확행은 20세기에 특 튀어나온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인간은 언제나 행복에 대해 고민해왔고, 그에 대한 현명한 깨달음을 얻은 현인도 꽤 많이 존재해왔다. 19세기를 살다 간 독일 철학자 니체는 현실에서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행복의 이상을 받들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정한다'는 가르침을 전했고, 그의 철학은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같은 최근의 베스트셀러에도 담겨 있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라브뤼에르는 '인생이란 느끼는 자에게는 비극,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극'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 이외의 다른 목적을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마르탱 파주 같은 현대 작가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인간은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풍경도 새로운 게 아니다. 루이스 펄퍼드의 <유토피아 이야기>를 보면 '허무주의의 끝'이라는 19세기 말의 논문을 소개하는데, 이 논문을 쓴 학자는 18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지의 마비에 고뇌하는 세대라면서 '그들 대부분은 살아 있는 시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썼다. <일든>이란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남겼다. '이 불안하고 부산하고 경박한 19세기를 살기보다, 이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기만히 서거나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싶다. 초연결, 초지능 같은 화두가 들끓는 21세기가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탄식은 나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거.

## 선택은 나의 몫,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어쩌면 작금의 소확행이라는 것도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추구한다면 주입된 유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명제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불행한 강박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공각기동대>를 만든 애니메이션 거장 오시이 마모루 감독은 <철학이라 할 만한 것>이라는 저서에서 역시 '현상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의 행복은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행복해지기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정해진 유통기한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하기에 전혀 상관은 없다면서 '만약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택한 인생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간이란 어차피 흠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내려놓아도,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해봐도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역사에 휘황찬란한 이름을 남기지도 못한다(하지만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하다 못해 심심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부부를 조명한 영화 <패티슨>은 보통의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다. 정해진 경로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시를 쓴다)와 예술가적인 삶을 끝없이 추구하는 주부 아내의 일상은 사실 별 게 없고, 둘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아주 소중한 아픔이라는 식으로 과장하거나 걸치려를 피하지 않는다. 삶을 시처럼 만드는 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본연의 외로움을 차지한 빈 공간을 오롯이 느끼고 그 깊어진 영혼의 시선으로 삶을 대할 때, 그렇게 주변인을 바라볼 때, 묵묵하게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시가 느껴진다.

포르투갈 현대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꼽히지만 생전 작가로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 페르난도 페소아는 인생을 가리켜 '명부에서 올라온 우편 마차'가 나를 데리러 오기 전까지 그 안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집이라고 했다. 각자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려도 되는 집 말이다. 어둠과 모호함, 실재, 공경, 침묵 등을 얘기한 페소아의 에세이집 <불안의 세>는 '자상에서 가장 슬픈 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데, '괜찮아~'의 미학이 무엇인지 알 듯한, 그래서 위로가 되는 문장을 만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저녁은 다가올 것이다. 우편 마차는 도착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산들바람을 마음껏 즐긴다. ... 내가 지금 여행자의 책에 써넣는 것이 언젠가 다른 아들에 의해 읽힌다면, 그래서 그들의 후손에도 읽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무도 이것을 읽지 않거나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 **김고성연**





가전, 작품이 되다



초프리미엄 가전, 그 위대한 여정  
**LG SIGNATURE**





가전, 작품이 되다



초프리미엄 가전, 그 위대한 여정  
**LG SIGNATURE**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일론 소재 모자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218-5331, 샌디 마-아 토트백, 41X35cm, 2백35만원 **펜디**, 문의 02-2056-9023, 체크 패턴 범백, 19X14.5cm, 1백19만원 **버버리**, 문의 080-700-8800, 파이론 소재 플럼 백, 26X16.5cm, 5백80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청록색 캐시미어 머플러 1백30만원 **페 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페이턴트 가죽 신발 93만원 **델포조**, 문의 02-3449-5926, 울 소재 클루수 34만원 **엘레방탄스키**, 문의 1899-0417, 스카족 부츠 57만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문의 02-546-6090, 송아지가죽 슬더백, 16X17cm, 1백65만원 **살바토레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실크와 울 소재 재킷, 실크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문의 02-543-5125, 송아지가죽 파카부 X-Lite, 42X32cm, 5백95만원, 퍼스제 슬더 스트랩 1백49만원, 탠반인 모양 참 75만원 모두 **펜디**, 문의 02-2056-9023, 동전 지갑과 카드 지갑을 단 루나백, 21X15cm, 3백27만원 **보타가 베네타**, 문의 02-3438-7882, 가죽 장식 선글라스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38-6008, 송아지가죽 펌프스 1백12만원 **생 로망 by 언도나 바카렐로**, 문의 02-3438-7627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울 소재 페도라 44만원 **엘레방탄스키**, 문의 1899-0417, 코트 소재 재킷 2백65만원, 코트 소재 셔츠 95만원, 캐시미어 스웨터 1백31만원, 코트 소재 팬츠 1백만원 모두 **보타가 베네타**, 문의 02-3438-7882, 헝가리프 가격 미정 **보스 맨**, 문의 02-515-4088, 스트라이프 넥타이 12만원, 브룩스 브라더스, 문의 02-2052-8824, 도트 패턴 넥타이 가격 미정 **에스. 티. 윙클 클래식**, 문의 02-2106-3577, 타조 가죽 더블 백, 38X32cm, 2백85만원 **살바토레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벨벳소재 드레이핑 슈츠 92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스카족 소재 부츠 72만원, **유니버서**, 문의 02-542-0370, 캐시미어 머플러 1백30만원 **페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가죽 벨트 77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트워드 소재 더블 백 가격 미정 **하트만**, 문의 02-3448-5914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패브리 소재 한팅 캡 928천원 **민상웨어**, 문의 02-545-8226, 메리노 카디건 52만원 **브룩스 브라더스**, 문의 02-2052-8824, 패치 디테일 지갑 71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사문형 모양의 에어팟 케이스 각 39만원, 원형의 헤드폰 케이스 44만원 모두 **보타가 베네타**, 문의 02-3438-7882, 스웨이드 부츠 64만원 **미스터 피 by 미스터 포터**, 문의 02-514-3788, 핑크색 양말 16만원 **펜디**, 문의 02-2056-9023, 크래스트 로고 더블 백, 58X28cm, 가격 미정 **버버리**, 문의 080-700-8800.



# Gift Guide THE FASHION

상대방의 취향을 간파해 선물을 고르는 현명하고 센스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럭셔리 패션 하우스에서 선택한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cha hye kyung*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패브리 소재 모자 90만원대, 대담한 프린트 실크 스카프 모두 5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가죽 소재 강아지 키 홀더 각 49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양가죽 장갑 1백만원대, 송아지가죽 헤이븐 30만원대, 말 모양 송아지가죽 슬더백, 11X18cm, 1천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스웨이드 슬더백, 22.3X17.4cm, 95만원 **MCM**, 문의 02-540-1404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퍼스제 가죽 미장미 **코어스 칼렉션**, 문의 02-546-6090, 불꽃 장식 슈츠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218-5331, 실크 소재 트월리 1628천원, 악어 가죽 토트백, 19X14cm, 1천4백90만원 모두 **플렘보 비아 델라 스피가**, 문의 02-516-9517, 컬러 포인트 스니커즈 가격 미정 **자렌시**, 문의 02-517-7560, 타조 가죽 롱부츠 6백99만원 **살바토레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고양이 그려진 송아지가죽 기방, 17.5X16.5cm, 5백49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아지가죽 엠보싱 백 백, 30.5X37.5cm, 3백55만원 **보타가 베네타**, 문의 02-3438-7882, 송아지가죽 참 40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캡 모자 62만원 **에르메네즈도 제나**, 문의 02-3479-6297, 스카족 소재 워커 가격 미정 **보스 맨**, 문의 02-515-4088, 모헤어 머플러 25만원대 **로에비 by 미스터 포터**, 문의 02-514-3788, 포켓보이주 백, 27X21cm, 1백20만원대 **루이 비통**, 02-3432-1854, 선글라스 20만원대 **레이벤 by 로스타카코리아**, 문의 02-501-4436, 인경 케이스 63만원 **에르메네즈도 제나**, 문의 02-3479-6297, 가죽 장갑 가격 미정 **살바토레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무스탕 재킷 1천47만원 **부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48-2931, 패브리 벨트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38-6008, 송아지가죽 스니커즈 1백68만원 **브로니노**, 문의 02-3274-6483, 캐시미어 머플러 4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스카족 지갑 39만원 **몽블랑**, 문의 1670-4810, 로고 패니 백, 46X18cm 1백56만원 **펜디**, 문의 02-2056-9023, 낚은 듯한 효과를 준 스니커즈 1백18만원, 수프림 캔버스 소재 토트백, 37X39cm, 1백64만원 모두 **구찌**, 문의 1577-1921 **객원 에디터 남지현**





**Special Selection**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셀렉트 마스크** 원료의 재배와 가공, 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뉴트리라이프의 파도 칼라 보보나킵 성분은 피부 깊숙이 파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다섯 가지 에너지를 마스크, 피부 고안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며 그로티 추출물이 촉촉한 수분감을 전하는 하이드레이팅 마스크와 화이트 차아 시든스 마스크를 받게 가꾸는 브라이딩 마스크, 시트러스 추출물이 모공 속 피까지 말끔하게 없애는 퓨리파이닝 마스크, 석류 성분이 순환을 돕고 피부를 쫄쫄하게 가꾸는 피밍 마스크, 블랙 카본트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깊숙이 영양을 더하는 플리싱 마스크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100g(피밍 마스크는 125g) 3만8천원, 문의 1588-0080 **오스트리치필모우 고(go) 여행용 목베개** 티조 베개로 유명한 오스트리치필모우에서 출시한 여행용 목베개, 고급 메모리 폼 충전재와 비스코스 및 엘라스토머 혼방 소재를 사용해 탄력 있고 부드러운 착용감이 특징이다. N자 형태나 길스 형태로 목에 고정하지 않고 언제 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어느 방향으로든 편안하게 목을 편하게 가질 수 있으며, 벨크로 테이프를 목 사이즈에 맞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다. 7만2천원, 문의 070-7503-3107



**THE BEAUTY & LIVING**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해야 한다. 디자인과 컬러, 효능뿐만 아니라 가치까지 특별한 뷰티와 리빙 기프트 아이템들. *photographed by cha hye kyung*

**Delicate Care**

(왼쪽부터) **라프라이프 스킨 케어 에센스-안-피우에이션 SPF 25/PA++**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하고 결점은 가려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피우에이션 선, 살짝 누르면 적당량만 나오는 네트 디퓨징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적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5gX2 25만3천원. **라프라이프 스킨 케어 에센스-안-로션** 클렌징한 후 바로 사용하는 프리 세럼으로, 라프라이프만의 독자적인 케어아 워터와 추출물, 펩투라 콤플렉스가 아우러져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다음 단계에 바를 제품의 효능을 극대화해 알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15ml 3만5천원, 문의 080-511-6626 **실크 페이스와이트 바이오텀라** 고주파 에-자(RF), 레드 라이트(LED), 적외선(IR) 에-자까지 동시에 진피층에 침투해 피부에 발효 발생시키고 피부 속부터 리프팅 효과를 더하는 뷰티 디바이스. 이마와 볼, 인중과 팔자 주름에 사용하면 피부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매끈하고 탭 탭하게 가꿔준다. 55만원, 문의 080-246-1234



**Couture Beauty**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코르테 마르셀 반디스 컬렉션 페이스 파우더** 2018 세계적인 아트 디렉터 마르셀 반디스와 매년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이는 데코르테에서 2018년 선보인 리미티드 에디션 페이스 파우더. 도자기를 연상시키는 오자이크 패턴 팩트에 유즈의 모습이 새겨진 파우더가 피부 결정을 자연스럽게 가리면서 반짝이는 피부로 연출해준다. 18gx2 30만원, 문의 080-568-3111 **볼리 1803 코미드 핸드&풋 크림** 케어아일 수액이 풍부하게 함유된 밤 타임의 핸드&풋 크림으로 시아바타가 피부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장벽을 강화해 손과 발을 부드럽게 가꿔준다. 75g 5만8천원. **볼리 1803 오 트리플 향수(리미트 데코스)** 볼리 고유의 워터 혼합법 기술로 만든, 알코올을 넣지 않은 워터 베이스 향수. 피부 자극이 적고 옷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처음 향기가 그대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계절의 리미트 데코스 향은 갈바논과 제라늄 에센스가 아우러져 이국적이면서도 상쾌한 느낌을 전한다. 75ml 20만5천원. **볼리 1803 알라바스트 스킨 디퓨저** 고급스러운 세라미 성분에 토탄산이 들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디퓨저. 여가 향이 나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은은한 향이 퍼진다. 호트루 이집트, 이탈리아 캄파뉴, 씨르 등 일곱 가지 향의 오일 중 골라 사용할 수 있다. 10만8천원, 문의 1544-5114



**Sweet & Smooth**

**펜할리곤스 크리스마스 세트** 디마스카스 장미 향과 제라늄 향이 부드러운 화이트 블러드 오렌지와 만다린이 매혹적인 느낌을, 영피와 우드, 파슬리 향이 관능적인 느낌까지 주는 엠프레스 향수와 피부를 보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 향수의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엠프레스 비디 크림을 연말 분위기 물씬 풍기는 스틸 바스에 담은 선물 세트. 100ml(향수), 300ml(비디 크림) 29만원, 문의 02-3443-1805



**Red Holic**

(위부터) **샤넬 익스클루시브 크리에이션 라 팔레트 가락메오** 라이트 오렌지와 코랄레드, 브릭 레드, 라즈베리, 딤 초콜렛, 버건디 등 다섯 가지 컬러를 담은 입 팔레트로 세틴, 벨벳 등 다양한 텍스처로 구성되었다. 7.5g 8만1천원. **샤넬 N5 레드 에디션** 샤넬 최초로 선보이는 레드 클래스 보틀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샤넬의 상징이기도 같은 N5 향수가 유혹의 상징인 레드 컬러 보틀에 담겨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렬하게 전한다. 100ml 25만3천원, 문의 080-332-2700



**Color Attraction**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금 입술퀴 루즈** 입술퀴 루즈의 베스트셀러 3종으로 구성된 리미티드 에디션 립스틱으로, 매력적인 MLBB 립을 연출할 수 있다. 3.4g 4만2천원대. **황금 로즈 스파클링 파우더** 황금의 상징인 장미 모양 골드 파우더.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 브러시로 콧대와 이마에 살짝 뿌려두면 한결 고급스러운 피부가 완성된다. 1.9g 1만9천원대. **황금 헤미니스 스킨을 컬렉션 쿠션 컴팩트** 금빛 글리터로 장식한 케이스에 담긴 베스트셀러 쿠션으로 메이크업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피부를 연출하는 제품. 불량 엑스퍼트 쿠션 리필 13gx2 8만2천대, 병이들 톤라스팅 쿠션 14gx2 8만3천원대, 문의 080-001-9500 **입성로랑 골드 어트렉션 메이크업 팔레트** 다양한 질감과 컬러의 아이샤도, 블러시, 하이리니어가 담긴 메이크업 팔레트. 블랙과 골드 컬러, 매트와 스파클의 대비되는 질감과 컬러를 모두 갖춰 내추얼부터 메이크업 메이크업까지 다양한 룩을 완성한다. 12g 10만8천원대. **입성로랑 루주 퀴르 컬렉션 에디션 #52, #1** 루주 퀴르 컬렉션의 여성 기지 베스트 컬러를 새로운 패키지에 담은 리미티드 에디션. 섹시한 컬러감과 부드러운 텍스처로 매력적인 립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3.8g 4만4천원대, 문의 080-347-0089



프랑스 스타일링 향수이

**Red Holiday**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브마니 투고 쿠션 홀리데이 에디션** 골드빛 모노그램을 입은 아이코닉한 레드 쿠션으로 벨벳처럼 매끄러운 마무리감으로 고급스러운 무광질 피부를 연출한다. 15g 9만9천대. **조르지오 아르마니 씨 레션 오드 파퓸 홀리데이 에디션** 감동한 레드 컬러 보틀에 담긴 아브마니의 파퓸으로, 보틀의 골드 모노그램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50ml 13만4천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엑스터시 사인 홀리데이 에디션 #404 레드레드** 바르는 순간 입술에 부드러운 촉촉함을 전하는 엑스터시 사인의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감동한 레드 컬러가 매력적인 입술을 완성한다. 3g 4만5천원대.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이 퀴트로 홀리데이 에디션** 로즈 샴페인 펄, 진주 펄, 토프 브라운 컬러 등 홀리데이 무드를 담은 네 가지 컬러로 구성된 아이 메이크업 팔레트로 기류 날림 없이 반짝이는 눈매로 연출해준다. 50ml 13만4천원대, 문의 080-022-3332



**Prestige Class**

**샤넬리 2018 오 뒤 스와르 리미티드 에디션** 오 뒤 스와르만의 고급스러운 플로럴 노트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매년 출시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올해로 16번째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벨벳 레오파드 리그에서 영감을 얻어 보틀에 골드와 블랙 무늬를 새겼으며, 오 뒤 스와르 향기의 우아함과 관능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레오파드 프린트 박스에 담겨 있다. 100ml 30만원, 문의 080-549-0216 **크루그 그랑 퀴베 166 에디션** 가장 풍부하게 표현된 샴페인으로 불리는 크루그 그랑 퀴베의 탄생 1백74주년을 맞아 선보인 제품으로 2010년부터 1998년 사이에 만든 107가지 다른 빈티지의 와인 1백40종을 블렌딩해 만든 샴페인이다. 피노 누아 45%, 샤도네이 39%, 위니에 16%를 블렌딩했으며, 크루그 셀라에서 약 7년간 숙성을 거쳐 풍미와 이로미로 가득찬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750ml 35만원대, 문의 02-2188-5100 개원 에디터 **사치제**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페퍼 플라워 펜던트 1천2백만원대,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헤쳐 세팅한 T 스퀘어 브레이슬릿 1천8백25만원대, 마카즈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페어 세이프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빅토리아 키 펜던트 1천8백60만원대, 체인 60만원대 모두 **타미나**, 문의 02-547-9488



(위부터) 따뜻한 핑크 골드 소재의 베를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2천7백만원대, 골드 마더오브 밀과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빈티지 알함브라 펜던트 4백90만원 모두 **반달리프 이젤**, 문의 00738-852-16123



(위부터) 레드 하이 세라믹, 그로그랭 모티브의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쿼트로 레드 다이아몬드 스몰 링 9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작은 펜던트가 사랑스러운 쿼트로 레드 미니 링 원 다이아몬드 펜던트 네크리스 4백만원대 모두 **부채본**, 문의 02-6905-3322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즈 골드에 말라카이트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불가리 불가리 겔라티 링 2백만원대, 아이스크림 모티브가 워트 남자는 로즈 골드 소재의 불가리 불가리 겔라티 브레이슬릿 2백만원대, 로즈 골드에 말라카이트, 카날리언, 라피스 라줄리, 그리고 마더오브밀을 세팅한 불가리 불가리 클래식 네크리스 1천5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문의 02-2056-0171

Gift Guide

# THE JEWEL

작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큰 감동을 안겨줄 주얼리를 모았다. 영롱한 빛과 기품 있는 색에 담긴 당신의 마음이 아름다운 올림으로 전해진다. *photographed by cha hye 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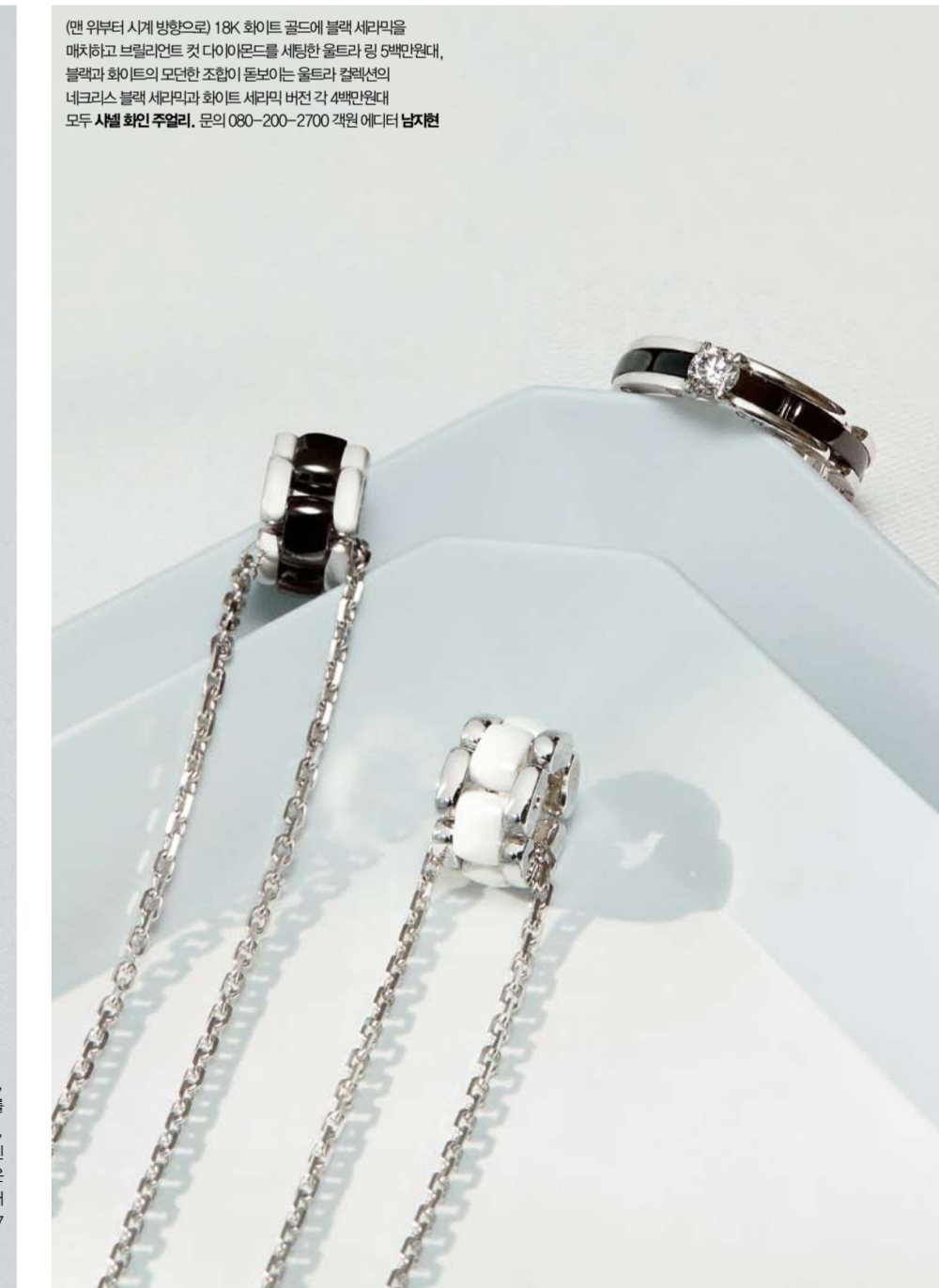
(맨 위부터) 붉은빛의 카보숑 컷 카넬리언을 세팅한 핑크 골드 포세션 펜던트 네크리스 5백60만원, 18K 핑크 골드에 카보숑 컷 티루키즈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세션 네크리스 2백13만원, 20개의 다이아몬드를 파헤쳐 세팅하고 카넬리언을 세팅한 포세션 오픈 링 3백36만원, 카보숑 컷 블랙 옉닉스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세션 네크리스 2백13만원 모두 **파아제**, 문의 02-540-2297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상급 아코아 진주와 0.0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브찌 밸런스 클러스 네크리스 2백20만원대, 작고 귀여운 아코아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균형을 이루는 화이트 골드 브찌 밸런스 아이링 2백만원대, 최상급 아코아 진주를 인상감 있게 세팅한 밸런스 네오 네크리스 2백90만원대, 아코아 진주와 0.07캐럿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화이트 골드 브찌 밸런스 클러스 네크리스 2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문의 02-3461-5558



(위부터) 코르셋의 정공장치에서 영감을 받은, 2.4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그리프 브레이슬릿 4천1백만원대, 뜻을 모티브로 해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인 에쿠루드 캐러다에 링 18K 옐로 골드, 같은 디자인의 18K 핑크 골드 각 2백70만원대 모두 **캐러다에**, 문의 1577-7277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블랙 세라믹을 매치하고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울트라 링 9백만원대, 블랙과 화이트의 모던한 조화가 돋보이는 울트라 컬렉션의 네크리스 블랙 세라믹과 화이트 세라믹 버전 각 4백만원대 모두 **사블** 확인 주얼리, 문의 080-200-2700 객원 에디터 남지현





(우부터) 실버 도금 다이얼의 18K 레드 골드 베젤에 6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포르토파노 오토매틱 문페이즈 37 2천7백만원대, 1백34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된 IWC 자체 제작 68355 칼리버를 장착해 4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추었다.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150주년 에디션 2천만원대, 모두 IWC, 문의 02-3440-5876

Gift Guide

# THE WATCH

품격과 실용성을 아우르는 선물을 고른다면 시계만 한 것이 없다. 게다가 가죽 스트랩 시계라면 시대와 성별과 취향을 넘어서는 완벽한 맞춤 선물이 될 것이다. *photographed by cha hye kyung*



(왼쪽부터) 볼록한 달걀형 케이스의 초연 화이트 마더오브밀 다이얼과 26개의 브라운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드 풀링 클라스트프의 새틴 스트랩이 우아하다. 브라운이 컷 다이아몬드 와인딩 크라운까지 완벽하게 우아한 시계 레인드 네이플 미니 8928 4천만원대, 40mm 직경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그랑피에-렐 다이얼과 블루 핸드와 클라스트프를 상징한다. 클라시 7147 2천만원대, 모두 브리예, 문의 02-6905-3571



(우부터) 실크 패브릭 패턴이 돋보이는 화이트 실버 다이얼 위 6개의 블랙 다이아몬드 홀더, 블랙 핸드와 로마숫자가 고급스럽다. 코엑시얼 칼리버 2500으로 구동하는 드 빌 프레스티지 4백만원대, 직경 39mm의 슬링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가 측면을 따라 곡선을 그리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드 빌 트래저 6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511-5797



(왼쪽부터) 세련된 화살촉 모양 인덱스가 특징으로, 오토매틱 무브먼트 Cal. 633을 장착했으며, 38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콘퀘스트 레플리카 2백84만원대, 직사각형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베젤에 다이아몬드 36개를 세팅한 톨레타 3백만원대, 직사각형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퀴츠 무브먼트 Cal. 178을 장착한 톨레타 1백72만원 모두 루진, 문의 02-310-1597 객원 에디터 남지현

(맨 왼쪽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디션 캄페트 아디션 사누이즈리리스트 엔퍼터** 이탈리아의 가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Bernardo Bertolucci)의 영화 《아카피 캄페》 배경인 중국을 테마로, 가을 색을 담은 아이세도 팔레트, 황후의 아름다움과 고귀함, 권력을 표현한, 은은하게 빛나는 팔부터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선명한 발색의 매트 텍스처까지 대담하면서도 아름다운 컬러로 구성했다. 9g 9219만원, 문의 080-568-3111

**다움 루즈 다움 울트라 루즈** 패킷이면서도 소조하고 싶은 욕구가 들게 하는 시크한 레드 룩을 입은, 다움의 아이코닉한 #999 레드 컬러 린스틱, 세미매트 파키시 레드 색상으로, 블랙 수트 룩 또는 화이트 셔츠를 매치하고 입술에 약간의 타치만 더해도 한층 매력적인 인상을 연출해줄 것이다. 3.2g 4213만원대, 문의 080-342-9600

**랑콤 입술루 루즈 드라미드** 고혹적인 비건디 색상의 #507 린 컬러와 보디 케이스가 동일한 라미티드 에디션,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입술루 루즈의 매트한 버전으로, 입술에 완벽히 밀착되어 완벽한 색을 표현한다. 3.4g 4212만원대, 문의 080-001-9500

**캘링 카스키스 린스틱**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 웃으로 새롭게 갈아입은, 우아한 곡선의 큐브 디자인 케이스가 돋보이는 린스틱, 카스키스 컬렉션 출시 이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다섯 가지 컬러로만 재출시했으며, 각 린 컬러 색상에 맞춰 케이스도 특별 제작해 소장 가치가 높다. 감각적인 핑크 색상의 #371 달링 베어는 입술에 매끄럽게 밀리며 즉각적인 볼륨과 부

드움을 선사한다. 3.5g 4215만원, 문의 080-343-9600

**나스 아테이시스 린스틱 팔레트 세븐 데블리 신스** 감각적인 패키지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뉴트리얼 핑크 베이지 톤부터 담탄 베리 세이지까지 팔레트가 완벽한 새로운 일곱 가지 세트 로 선보이는 린 팔레트, 대담한 연출이 가능한 실용적인 컬러 팔레트로, 여행이나 출장 길에 휴대하기 편리한 것. 2gX7 6219만원, 문의 02-6905-3747

**다움 5 컬러로 다움 앙 다움** 다움에서 율가를 선보이는, 스파이더맨에서 스포카한 가을 컬러를 담은 아이세도 팔레트, #087 풀커 에디션은 이름 그대로 용안, 화상을 떠올리게 하는 오렌지와 브라운, 그레이의 조합이 오묘하면서도 매력적이다. 이 팔레트를 통해 관능 적인 연상도 색다른 연출까지도 연출을 느껴보길, 7g 8217만원.

**조르자오 아르마니 아이 드라마 컬렉션 아이 콤팩트** 아르마니의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담은 톤 온 톤 컬러의 4구 아이세도 팔레트 #06 인크로크,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 컬러를 코랄로, 베 이지부터 섀피안 골드, 카키, 브라운까지 다양한 컬러와 매트, 새틴, 스파클링 파키시 등 믹스 매지가 풍부한 텍스처로 구성했다. 3.6g 8212만원대, 문의 080-022-3332

**샤넬 아포테오시스 르 미르 드 샤넬 레 캄페트 옹블르** 강렬한 토포 베이지와 따뜻한 질은 브라운, 블랙, 밝고 은은한 베이지까지, 한눈에 봐도 가을의 색감을 담았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매트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해는 이번 샤넬 메이크업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클래식한 유광 케이스에서 우아한 무광 케이스로 바뀌었다는 점. 2g 7219만원, 문의 02-3708-2009

**클레르보 보테 루주 아 레브르 캐시미어 미지 캐시미어** 아름다운 목에 두른 것과 같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입술에 밀착되는 럭셔리한 매트 린스틱이다. 기존 매트 린스틱의 텍스처와 달리 특유의 건조함과 답답함이 없으며, 은은한 광채를 선사해 입술의 볼륨감을 살린다. 신 비로온 드크 레드 #104 컬러로 어느 곳에서나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4g 6215만원, 문의 080-564-7700

**맥 아시세오우** 여성의 뷰티 피우치 안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맥 아시세오우, 피치 톤의 소프트 뉴트리얼 컬러의 #테이아-핀트 색상과 톤 다운된 베이지 토포 색상의 #오메가, 두 가지 컬러 모두 가을 울림 메이크업에 베이스 컬러로 사용해 깊고 그윽한 눈매를 연출하기에 제격이다. 각 1.5g 2217만원, 문의 02-3440-2782

**로라 메르시에 블러쉬 컬러 인퓨전** 한국 여성의 피부 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린 실꽃의 파우더 블러시, 코코넛 오일 성분을 담아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몽글 몽글이 가볍게 밀착되어 쉽고 자연스러운 치크 연출이 가능하다. 6g 421원, 문의 02-564-0055 에디터 이지현



## deep in Color

감각적인 텍스처와 대담한 컬러가 돋보이는 2018 겨울 뷰티 팔레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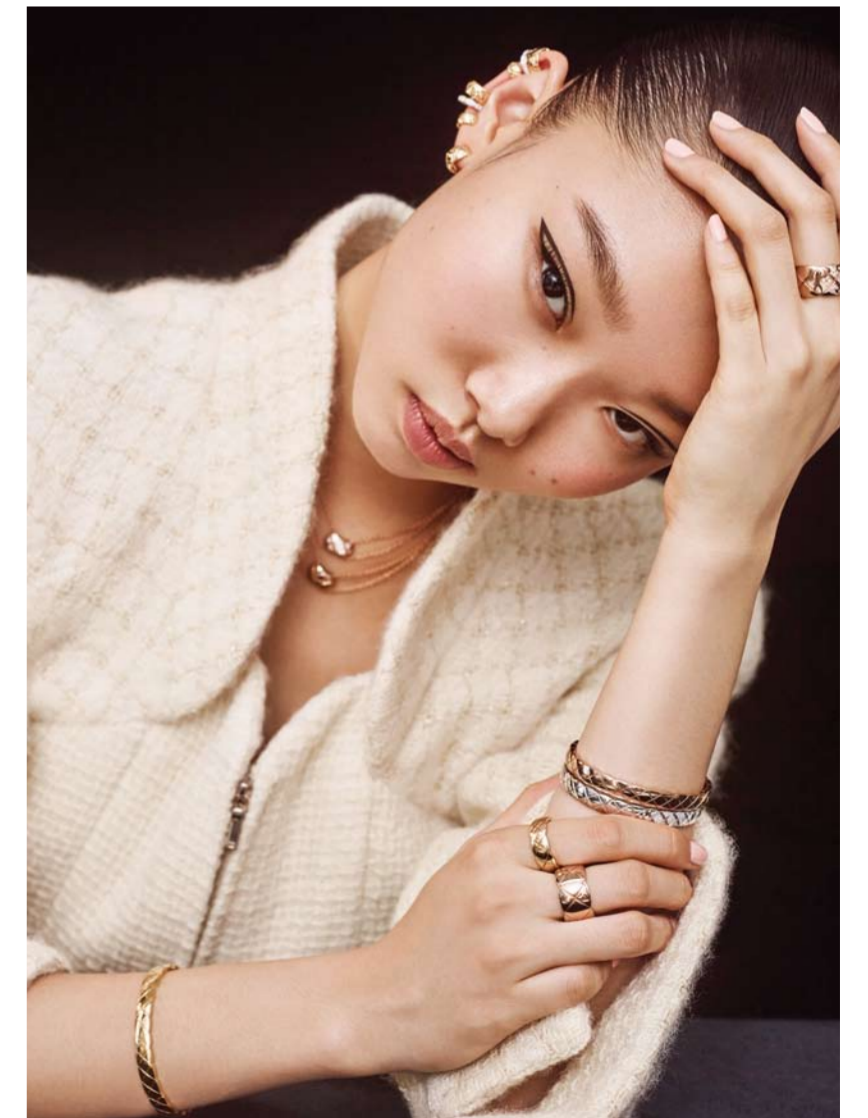
아시세오우



이아이프로 착용한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 세팅의 화이트 골드  
믹스 이어링, 베이지 골드에  
53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미디엄 링,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모두 코코 크러쉬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 Crush on You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한 매력, 그리고주얼리 그 이상의 존재감,  
샤넬 화인 주얼리의 코코 크러쉬.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 세팅의 화이트 골드 이어링, 옐로 골드 이어링, 레이아웃해 연출한 베이지 골드 소재 솔리드 및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의 네크리스, 오른손 중지의 베이지 골드 미디엄 링, 오른쪽 손목의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왼손 중지의 베이지 골드 다이아몬드 미디엄 링, 왼손 검지의 옐로 골드 스몰 링, 왼쪽 손목의 베이지 골드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모두 코코 크러쉬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티아와 배윤영이 이어카프로 착용한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믹스 이어링, 옐로 골드 이어링, (티아) 베이지 골드 네크리스, 감자의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마디엄 링, 양자의 화이트 골드 스톤 링, (배윤영) 베이지 골드 네크리스, 감자의 옐로 골드 스톤 링, 중자의 화이트 골드 스톤 링, 양자의 베이지 골드 미디엄 링 모두 코코 크러쉬 가격 미정 사설 확인 주얼리.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싱글 후프 이어링, 여러 손가락에  
착용한 화이트 골드 스톤과 미디엄  
링,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모두 코코 크러쉬  
가격 미정 사설 확인 주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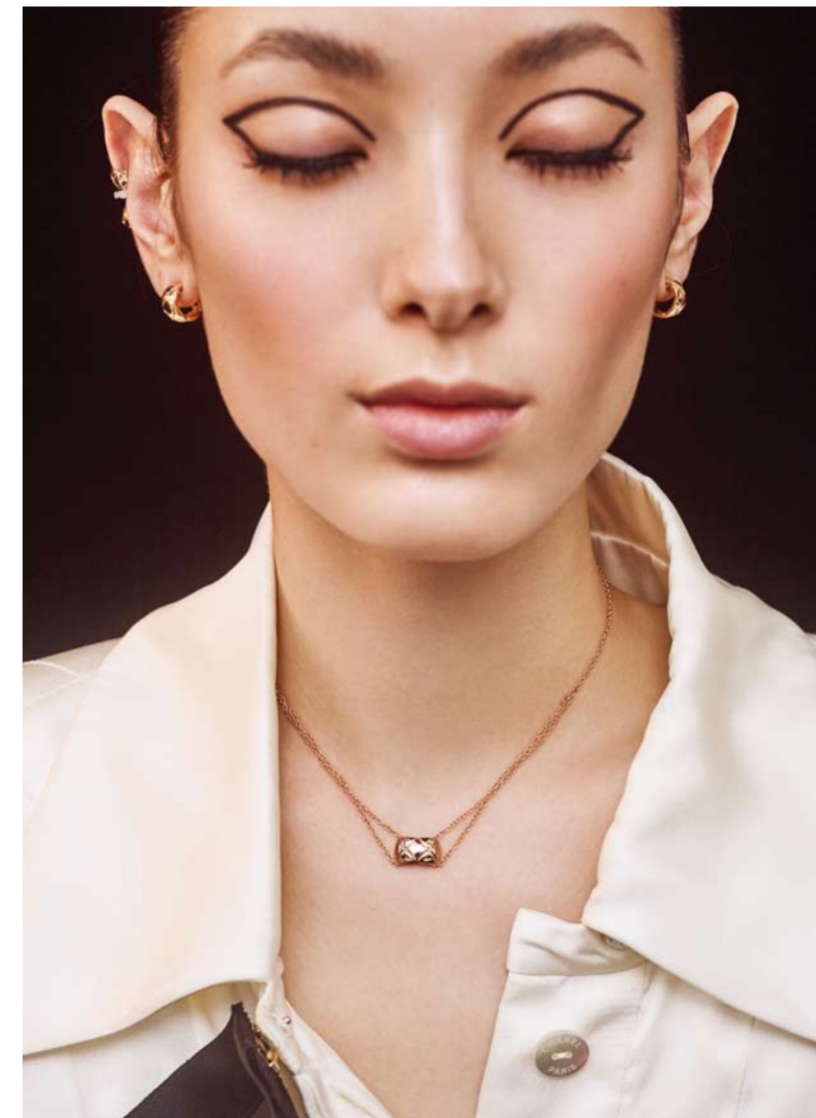






(배운영)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가 아우라진 이어링, 오픈손에  
 착용한 옐로 골드 스몰 링과 브레이슬릿,  
 (타야나) 옐로 골드 이어링, 베이지 골드  
 다이아몬드 세팅 네크리스, 양손 약지의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 스몰 링, 양쪽 손목의  
 베이지 골드 브레이슬릿, 오픈손 걸치와  
 새끼손가락의 옐로 골드 미디엄과  
 스몰 링 모두 코코 크러쉬 가격 미정  
 사넬 화인 주얼리.

헤어 이일중  
 메이크업 홍현정  
 모델 타야나, 배운영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믹스 이어링, 베이지 골드 네크리스, 양손가락에 착용한 옐로 골드와 베이지 골드 소재의 스몰과 미디엄 링 모두 코코 크러쉬 가격 미정 사넬 화인 주얼리. 문의 080-200-2700



톤온톤 세 가지 컬러를 조합한 '트라이 컬러 패들 퀵링 폴리스드 레더' 위트니 59만원, 장미꽃 패턴을 누빈 '패들 퀵링 폴리스드 레더' 위트니 59만원 모두 마이클 코어스.

가죽 플라워와 비즈 장식의 '비드 레더 플라워 위트니'는 1백25만원, 반짝이는 스타드를 세팅한 '플라워 스타드 오버로드' 위트니 1백25만원 모두 마이클 코어스.



# Sparkle and shine

마이클 코어스의 위트니(Whitney) 백이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눈부시게 변신했다. 위트니 위에 피어난 꽃 모양의 가죽 애플리케, 금색과 은색으로 반짝이는 비즈, 스타드가 홀리데이 룩의 완벽한 짝이 되어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cha hyc kyung*

뉴욕을 대표하는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시그니처 백인 위트니의 새로운 에디션을 선보인다. 지난여름 처음 공개된 위트니는 24시간, 3백65일 언제 어느 순간이나 잘 어울리는 데일리 가방. 담백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크기 덕분에 '폼팩 백'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마이클 코어스 라인의 새로운 잇 백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마이클 코어스가 어릴 때부터 스케치해왔던 문자이자, 그의 이니셜을 떠올리게 하는 M 자 로고와 피라미드 형태의 스타드 잠금장치는 위트니를 더욱 특별하게 해준다. 위트니는 본래 광택이 감도는 폴리스드 소재의 솔더백, 양쪽에 날개가 달린 듯 사다리꼴 형태를 띠는 사첵 백, 수납공간이 넉넉한 넓은 토트백, 세 가지였으나 높은 인기로 현안이 올 시즌에는 다양한 소재와 크기로 변형된 솔더백을 출시했다. 뉴욕의 사진작가 라클란 베일리(Lachlan Bailey)가 촬영한 광고 캠페인에 등장하는 '트라이 컬러 패들 퀵링 폴리스드 레더'와 '폴리스드 레더 위드 마이클 코어스 스타드'가 대표적이다. 톤온톤의 세 가지 컬러 가죽을 패치워크해 퀵링 효과를 준 '트라이 컬러 패들 퀵링 폴리스드 레더'는 퀵링 중간중간에 골드 컬러의 파이핑을 넣어 고급스러움과 더불어 글래머러스함을 동시에 전한다. 보다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원한다면 '쉐브론 모양으로 가죽을 패치워크하고 그 위에 볼 스타드를 촛촛하게 세팅한 '폴리스드 레더 위드 마이클 코어스 스타드'가 대표적이다. 톤온톤의 세 가지 컬러 가죽을 패치워크해 퀵링 효과를 준 '트라이 컬러 패들 퀵링 폴리스드 레더' 위트니 59만원, 장미꽃 패턴을 누빈 '패들 퀵링 폴리스드 레더' 위트니 59만원 모두 마이클 코어스.

이코로 스타드가 적당할 듯. 독특한 문양의 꽃잎 누비와 스타드가 촛촛하게 박힌 장미 모양의 잠금 장치가 돋보이는 핑크색 '패들 퀵링 폴리스드 레더'는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무엇보다 2018년 홀리데이 시즌에는 화려하게 반짝이는 익스클루시브 위트니를 주목할 것.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와 실버 체인, 스타드, 화사하게 피어난 꽃 장식 애플리케가 작은 위트니를 더할 나위 없이 극적으로 만들어 준다. 블랙 컬러 가죽 위에 골드 체인 12개와 실버 체인 12개를 쉐브론 모양으로 새겨 넣은 '체인 인레이'는 세련되고 강한 여성에게 잘 어울린다. 이 제품은 전 세계 1천 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약 5백 개의 다채로운 스타드를 달아 화려하게 반짝이는 '플라워 스타드 오버로드'도 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5백 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예정. 수작업으로 제작한 가죽 꽃 애플리케와 비즈 장식을 정교하게 수놓은 '비드 레더 플라워'도 놓치지 말자. 가방 하나를 만드는 데 가장 50시간이 걸리는 '마스터피스' 역시 전 세계 5백 개 한정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세 가지 익스클루시브 제품 모두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와 롯데백화점 본점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46-6090 객원 에디터 남지현

1 톤온톤 세 가지 컬러를 조합하고 골드 파이핑으로 화려함을 더한 '트라이 컬러 패들 퀵링 폴리스드 레더' 위트니 59만원, 2 7분 폴리스드 레더 위에 쉐브론 형태로 볼 스타드를 세팅해 패시너들의 사랑을 끌었다. '폴리스드 레더 위드 마이클 코어스 스타드' 위트니 65만원.

● sponsored by MICHAEL KORS  
포토: 스타일링 황유미

# all i want for Christmas is...

온 세상이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는 12월의 크리스마스는 많은 이들의 반짝이는 즐거움과 아이 같은 순수함을 되살린다. 티파니의 뮤즈인 김태리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스러운 소원을 전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티파니의 페이퍼 플라워를 선물 받고 싶어요."

꽃과 주얼리만큼 낭만적인 선물이 있을까?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연인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양증맞은 꽃 모티브를 반짝이는 주얼리로 표현한 티파니의 페이퍼 플라워 컬렉션을 추천한다. 종이로 만든 꽃에서 영감을 받아 만개한 꽃이 바람에 흩날리듯 플라워 핀으로 고정된 형태를 형상화했다. 정교하고 섬세한 디자인과 서정적인 분위기가 돋보여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듯. 활짝 웃는 입 모양을 형상화한 티파니 T 스마일 펜던트도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언제나 웃는 일만 가득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이 펜던트는 출시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티파니 T 컬렉션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여성에게 잘 어울린다. 에너지 넘치는 뉴욕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이며 강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자신만의 철학을 지닌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 혹은 스스로를 위한 남다른 선물을 찾는다면 티파니 하드웨어 컬렉션을 추천한다. 볼드한 체인 링크와 볼, 자물쇠 모티브 등 대담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에서 강렬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진다. '문을 연다는 의미에서 착안한 티파니 키 컬렉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의 이미지를 정교한 세팅과 황홀한 광채로 담았다. 길이가 길어 다른 목걸이와 레이어링하면 더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문의 02-547-9488 객원 에디터 남지현

1 김태리가 착용한 제품은 티파니 하드웨어 컬렉션의 티파니 T 스마일 펜던트.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2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티파니 하드웨어 파베 링크 브레이슬릿. 3 꽃잎을 오븐으로 표현한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오픈 플라워링. 4 로즈 컷 다이아몬드의 파베 세팅한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링. 5 김태리가 착용한 제품은 종이로 만든 꽃을 모티브로 정제된 여성미와 현대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파베 다이아몬드 플라워링.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링. 6 티파니 플라워 드 리스 키 펜던트. 7 티파니 빅토리 키 펜던트. 8 브랜드의 아티스틱 'T'를 활용하여 강렬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티파니 T 투 링.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로즈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9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클러스터 네크리스와 티파니 T 컬렉션의 파베 브레이슬릿을 여러 개 겹쳐 착용한 배우 김태리.



# perfection of Time

IWC 샤프하우젠 하면 떠오르는 두 단어는 기술력과 디자인이다. 한 시계 안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서로 경쟁하듯 이 두 요소가 각기 위엄을 뽐낸다. 1백50년이란 긴 역사 동안 IWC가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자 브랜드 정신이기도 한 이 두 단어를 잘 나타내는 시계가 있다. 바로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다.

photographed by cha hye kyung



(위부터) 18K 레드 골드 케이스와 그레이 컬러 다이얼에 더블 문페이즈를 갖춘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 18K 레드 골드 케이스와 화이트 다이얼의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블루 컬러 다이얼에 더블 문페이즈를 갖춘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

sponsored by IWC  
프롬 스타일링 하우스

## 정교한 기술과 예술이 담긴 완벽한 시계

시간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추억하게 하는 손목시계의 매력은 디지털 시대인 현재에도 유효하다. 패션의 완성은 움직임 때마다 커프스 아래로 살짝살짝 드러나는 시계. 고작 150g 남짓한 작은 시계 하나로 그 사람의 스타일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작고 동그란 물건 하나로 취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워치메이커들은 이 작은 물건이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이상의 가치를 지니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들은 지름 40mm, 두께 10mm 정도의 작은 원형 안에 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달과 별의 움직임을 재현했으며 시각을 소리로 표현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에나멜을 녹여 무궁무진한 세계를 그려 넣는 등 그야말로 세심하고 정교한 기술과 예술을 담아내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기계식 시계의 매력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IWC의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는 완벽한 시계라고 할 수 있다. IWC의 스토리는 마치 성공한 남자의 일대기처럼 느껴진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스위스의 장인 정신을 결합하고자 무작정 스위스로 떠난 브랜드 창립자 플로렌타인 아리오스토 존스(Florentine Ariosto Jones)의 야심 찬 도전 정신과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International Watch Company, IWC)라는 단순 명쾌한 이름이 바로 그렇다. 최초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형식 포켓 워치, 최초의 네 자리 연도 디스플레이, 최초의 그랑 컴플리케이션 손목시계 등 각종 신기록을 보유하며 술한 마니아를 만들어낸 이력도 남다르다. 이러한 IWC의 아이코닉한 타임피스로 자리 잡은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는 다이얼 위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루며 안정감 있게 위치한 4개의 작은 창이 특징이다. 12시 방향의 문페이즈, 3시 방향의 날짜와 파워 리저브, 6시 방향의 월 디스플레이, 9시 방향의 초침과 요일 디스플레이가 그것. 여기에 7시와 8시 방향 사이 네 자리 연도 표시창까지 추가해 지름 44.2mm 케이스에 성공적으로 이 수많은 기능을 담아냈다.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문페이즈 디스플레이이다. 이 디스플레이 속 달의 크기는 고작 5mm에 불과하지만, 그 달이 전해주는 감성은 보는 이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다. 미학적으로 가장 시적이고 로맨틱하다 여겨지는 문페이즈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달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워치메이커의 완벽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구현할 수 있다.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는 실제 달의 주기와 오차가 5백77.5년 동안 단 하루에 지나지 않을 만큼 매우 정확하다. IWC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는 모델에 따라 2개의 달을 장식한 다이얼도 있다. 이는 각각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달의 모습을 반사된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IWC 엔지니어의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불룩하게 양각 처리한 인덱스와 깔끔하고 날렵한 나뭇잎 모양의 핸즈도 복잡한 듯하지만 균형 있게 정리된 다른 디스플레이 요소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인체 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손목의 굴곡에 최적화된 러그와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산토니 스트랩을 매치했다.



## 천재 워치메이커가 개발한 무브먼트

문페이즈 기능을 구현하는 얇은 컬러 판, 레드 골드 소재의 로터와 블루 컬러 나사를 사용해 미학적인 아름다움까지 놓치지 않은 칼리버 52000 시리즈는 IWC에서 자체 제작한 무브먼트다. 놀라운 기술력을 함축한 이 무브먼트 덕분에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의 캘린더는 꾸준히 동력을 제공해주기만 하면 항상 정확한 날짜를 표시한다. 한 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일부러 크라운을 돌려 날짜를 맞출 필요 없이 알아서 스스로 세팅하고, 심지어 28일이나 29일만 있는 달도 모두 스스로 계산해 날짜를 적용하니 편리하기 그지없다. 수동으로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 날은 윤년을 건너뛰는 해인 2100년 3월 1일 딱 하루뿐. 이날을 제외하면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는 2499년까지 오차 없이 정확한 날짜를 표시한다. 손 뭉 필요가 전혀 없는 영원한 시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수많은 기능에도 조작하기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점. 하나의 크라운으로 모든 세팅을 해결할 수 있는데, 날짜가 하루 넘어갈 때마다 요일, 월, 연도, 문페이즈까지 같이 세팅되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 조작할 필요가 없다. 모든 IWC 시계에 새겨진 'Probus Scafusia(프로부스 스키타피아)' 마크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IWC의 약속. 그런 IWC의 1백50년의 긴 브랜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기술력과 디자인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은 IWC의 철학을 오롯이 담은 것이 바로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다. 문의 02-3440-5876 객원 에디터 남지현

1 모든 IWC 시계에 새긴 Probus Scafusia(프로부스 스키타피아) 마크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IWC의 신념을 상징한다. 2 18K 레드 골드 소재의 로터와 블루 컬러 나사를 장식한 IWC 자체 제작 칼리버 52610. 3 총립 1백50주년을 맞이해 올해 문물인 IWC의 새로운 매뉴팩처. 4 IWC의 워치메이커 총책임자로 활약했던 커트 클라우스(Kurt Klaus). 그는 네 자리 연도 디스플레이를 도입한 혁신적인 페페추얼 캘린더를 발명했다. 5 IWC 자체 제작 칼리버 52615. 영동하게 빛나는 더블 문페이즈 디스플레이가 남반구와 북반구의 달을 표현한다.





# a feast for your Eyes

홀리데이 시즌마다 특별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MCM. 올해는 젊고 힙한 부르주아의 호화롭고 프라이빗한 파티로 우리를 초대한다. 크리스털, 핀 스티드로 장식해 극도의 화려함을 자아내는 '모자이크 크리스탈', 메탈릭 가죽 위에 산세리프체의 'M' 로고 스티드를 더한 '퀵티드 스티드', 그리고 MCM의 아이코닉한 비세토스 패턴과 타로 다이아몬드 패턴을 배열한 팝적인 '스카이옵틱 비세토스 라인'을 지금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cha hye kyung



(맨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세토스  
이코닉 카드 지갑 26만5천원,  
패트리샤 퀵티드 스티드 백  
1백85만원, 스티크 퀵티드 스티드  
카메라 백 1백25만원, 스티크 퀵티드  
스티드 백 1백55만원 모두 MCM.  
각원 에디터 남지현

(맨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를린 오데온 탱버린 크로스 보디 백 1백15만원,  
베를린 모자이크 크리스탈 크로스 보디 백 3백25만원, 스카이옵틱 비세토스  
카드 지갑 18만5천원, 베를린 미니 백 1백15만원 모두 MCM.

© sponsored by MCM

## SPECIAL YEAR-END EVENT

〈스타일 조선일보〉와 함께 MCM 홀리데이 컬렉션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트 전행 기간 중 MCM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을 방문해 M-CLUB에 가입하신 분들 중 1분에게 추첨을 통해 'MCM 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 진행 기간 2018. 12. 5(수)~31(월) ◆ 진행 매장 MCM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매장 ◆ 문의 02-3479-1293  
\* M-CLUB은 MCM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 .....PROMOTION.....

해당 쿠폰 소지 고객에 한해 MCM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매장을 방문하시면,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1 Holiday Special Engraving Service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매장에서 홀리데이 기프트로 MCM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에 한해, 제품의 브라스 플레이트(Brass Plate)에 이니셜을 새겨드립니다.  
2 MCM Gift Event 해당 쿠폰을 지참하신 구매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립니다. (한정 수량) 50만원 이상 MCM 카드 지갑(Card Wallet), 70만원 이상 MCM 엔벨로프 파우치(Envelope Pouch), 1백만원 이상 MCM 엔벨로프 파우치(Envelope Pouch) & 스와로브스키 스티커(Swarovski Sticker)



# a tale of Luxury

젊음을 되돌리는 획기적인 세포 치료법  
 켈루라 테라피로부터 시작된 브랜드, 라프레리.  
 이 혁신적인 치료법과 더불어 진귀한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진정한 럭셔리 뷰티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라프레리의 40년 역사, 그리고 얼마 전 공개한 브랜드 영상  
 'A Tale of Luxury'의 특별한 제작 스토리를 살펴본다.

## 켈루라 테라피가 시작된 곳, 클리닉 라프레리

라프레리의 역사는 1931년에 문을 연 클리닉 라프레리에서 시작된다. 알프스 산맥과 레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스위스 몽트뢰에 위치한 이 클리닉은 세계적인 지도자나 유명인에게 젊음을 되찾아주는 치료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여기에 폴 니한스 박사가 자신의 혁신적인 세포 치료법인 켈루라 테라피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젊음을 되돌리는 성역과 같은 곳으로 명성을 쌓아간다. 1953년 폴 니한스 박사는 단순히 세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을 발견해 냈고, 이 놀라운 치료법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교황 비오 12세를 기적으로 회복시키며 젊음과 활력을 주는 치료의 메카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클리닉 치료법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라프레리는 독점적인 켈루라 콤플렉스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캐비아, 화이트 캐비아, 플래티늄, 골드 등 진귀한 원료를 더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세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40년 동안 비밀을 유지하며 지켜온 켈루라 콤플렉스는 처음 출시된 이래로 계속 발전되고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을 찾아내는 연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라프레리는 이 특별한 성분을 보호하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특허 기술 등록과 함께 어떤 과학자나 연구자도 정확한 제조법을 알지 못하도록 그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 네 가지 진귀한 원료, 그리고 끝없는 여정

라프레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알프스의 골짜기, 바다 깊은 곳, 땅속의 지하 아래까지 다양한 곳에서 진귀한 원료를 찾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캐비아와 화이트 캐비아, 플래티늄, 골드라는 네 가지 진귀한 원료를 찾아냈고, 이들 원료로 만든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많은 여성들의 피부를 젊고 아름답게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캐비아는 네 가지 중 라프레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원료다. 라프레리는 30년 전, 캐비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캐비아 추출물, 캐비아 워터, 캐비아 앰플루트를 포함한 라프레리만의 독점적인 캐비아 베이스 활성 성분을 찾아냈다. 강력한 리프팅과 피밍 효과로 피부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과 함께 피부 장벽을 강화해 여러 보이는 피부를 만드는 캐비아. 한마디로 라프레리의 캐비아 사이언스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만들어내는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프레리의 또 다른 진귀한 원료, 플래티늄은 수천 년 전 유성우와 함께 지구에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하다고 손꼽히는 금속 중 하나다. 다른 금속과는 차원이 다른 탄성과 정교함을 지닌 플래티늄만의 장점을 활용해 독점적인 플래티늄 사이언스로 발전시킨 라프레리는 이 원료를 세포의 기능과 피부 구조의 보존을 도와주며 노화의 징후를 없애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골드 또한 라프레리의 획기적인 안티에이징 컬렉션에 사용하는 원료 중 하나다. 클레오파트라나 고대 중국 왕조의 황후들, 일본의 게이샤가 피부 관리에 금을 사용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 피부 미용에 자주 사용했던 골드. 라프레리는 퓨어 골드 입자를 안티-링클 펩타이드와 결합해 피부 활력을 되찾아주는 다양한 제품 컬렉션으로 개발했으며, 순수한 골드 파우더가 들어 있는 독점적인 골드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개발해 피부를 더욱 밝고 빛나게 변화시킨다. 창립 이래 독점적인 켈루라 콤플렉스와 네 가지 진귀한 원료로 효능을 더욱 강화해가는 라프레리. 이런 연구와 노력 덕분에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브랜드, 영원한 아름다움을 되찾아주는 뷰티 브랜드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객원 에디터 서지혜**



1 라프레리의 진귀한 네 가지 원료인 캐비아와 화이트 캐비아, 금, 플래티늄. 2 라프레리의 원료 중 하나인 캐비아. 라프레리만의 독점적인 캐비아 활성 성분으로 강력한 탄력 개선과 리프팅 효과를 발휘한다. 3 플래티늄만의 장점을 활용해 라프레리만의 플래티늄 사이언스로 발전시켰다.

## 라프레리의 철학이 담긴 영상 'A Tale of Luxury'

라프레리가 브랜드 철학과 시그니처 스킨케어 컬렉션에 사용된 네 가지 성분 이야기를 담은 영상 'A Tale of Luxury'를 공개했다. 라프레리의 브랜드 스토리를 감각적으로 담은 이 영상은 라프레리의 품격에 맞는 비주얼, 음악, 내레이션이 조화를 이룬 구성으로 브랜드의 진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플래티늄과 골드, 화이트 캐비아, 캐비아 성분 사이를 가로지르는 여성의 신비로운 실루엣은 우아한 움직임으로도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든다. 라프레리의 선임 아트 디렉터 질 에스티브(Gilles Esteve)의 말처럼 이미지, 컬러 팔레트, 음악, 편집 등 모든 요소가 라프레리의 네 가지 럭셔리 컬렉션에 깃든 신비롭고 풍부한 면에서도 절제된 품격을 표현하는 이 영상은 라프레리의 웹 플랫폼과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ponsored by la prairie



## Glamorous Mood

이제까지나 새로운 트랜드는 웃을 선행했을 때 귀고리나 목걸이 등 중 하나에 힘을 주면 적당히 신경 쓴 듯한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 파인 주얼리에서 영감을 받아 정교하게 세팅한 크리스탈 스톤을 길게 늘어뜨린 '루이' 중 드림 이어링과 귀에 딱 붙게 디자인된 스타일 이어링으로 포인트를 주자. 빈틈없는 크리스탈 귀고리는 얼굴이 밝아 보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루이 중 컬렉션 귀고리를 골랐다면 '스파클링 덴스 네 크리스탈' 추천한다. 스와로브스키의 시그니처 이어링으로 움직임에 따라 팬던트의 크리스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다각도로 화려한 반짝임을 만들어낸다. 다음은 손에 신경 쓸 차례.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옥테이 노바' 메시 워치는 여러 개의 팔찌를 레이어드하는 것보다 더 화려한 느낌을 준다. 한 조각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정교하게 세팅한 디자인이 특징. 68개의 커팅 면이 빛을 받을 때마다 반짝인다.



● sponsored by SWAROVSKI



# Magic in your life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많은 모임,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에서 나를 돋보이게 해줄 빛나는 주얼리를 모았다. 스와로브스키가 제안하는 마법 같은 스타일링 팁 둘.



## Modern Elegance

단정하게 격식을 차려 입어야 하는 센스가 필요한 자리도 있다. 이럴 때는 웃은 물론 주얼리도 단정하고 모던한 것으로 선택해본다. 눈송이 모티브 팬던트 매직 이어링과 네 크리스탈 제2피, 간결하고 완벽해 웨이스, 블리투스, 팬츠 스톤 등 어떤 파티나 장 어울리는 데다,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다양한 연령대의 자인 또는 연인을 위한 선물로 어울려도 손색이 없다. 손목에는 움직임 때마다 살짝씩 모습을 드러내는 크리스탈 레이저 워치를 매치해본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마치 티 없이 깨끗한 호수 표면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크리스탈 레이저 워치라 불리는 시계다. 가죽 스트랩만 있었던 기존과 달리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좀 더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더했다. 화이트와 실버, 심해인 골드와 로즈 골드 등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 Special gift for you

크리스마스과 연말이 다가오면 소중한 이들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게 된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래서 더욱 잊지 못할 선물을 위해 불리 1803이 제안하는 특별한 선물 준비법. *photographed by cha hye kyung*



**불리 1803 오트리플 향수(리컨 데코스)**  
일코율이 전혀 없는 워터 베이스 향수로 뿌리는 즉시 상쾌하고 싱그러움 느낌을 리컨 데코스의 향을 느낄 수 있다. 퍼퓸과 비슷한 지속성으로 하루 종일 은은한 향을 풍긴다. 75ml 20만5천원.

© sponsored by BULY 1803 퍼퓸 스테이션 향수이



**STEP1 불리 1803 매장을 방문한다**  
가장 추천하는 곳은 청담 부티크다. 2016년 8월 국내 론칭과 함께 문을 연 불리 1803 청담 부티크. 이곳은 파리에서 아트 디렉터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중인 불리 1803의 CEO 람단이 메인 디렉터로 참여해서 모든 과정을 함께해 19세기 프랑스 건축물을 옮겨놓은 듯 고풍스러운 외관이 특징이다. 매장 내부의 가구는 19세기 프랑스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그곳 장인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했으며, 불리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매장 바닥과 가구, 소품은 19세기 프랑스라는 콘셉트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민일 청담 부티크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또는 온라인몰에서도 불리 1803을 만날 수 있다.



**STEP2 불리 1803의 세 가지 추천 아이템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른다**

**불리 1803 알리바스트 스킨 디퓨저 10만8천원.**

**향기로 공간을 선물하고 싶다면?**  
세라믹 상자에 들어 있는 지그마한 퇴적암 알리바스트는 불이나 중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향기를 풍기는 스톤 디퓨저다. 퇴적암에 원하는 향의 향유를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세라믹 용기가 열려 있는 동안 공기 중에 은은한 향이 퍼지며 공간을 향기롭게 바꿔준다. 이탈리아 캄파뉴 지역의 향을 담은 이탈리아 캄파뉴와 레몬과 민트, 진저 향이 어우러진 알렉산드리아, 마치 예배당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싸크르 등 총 일곱 가지 향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 또한 넓다.

**겨울 날씨를 담은 청이하고 상쾌한 향을 선물하고 싶다면?**  
불리의 워터 혼합법 기술로 탄생한 워터 베이스 향수. 일코율이 전혀 없는 워터 베이스 향수로 피부에 자극이 없고 옷에 착색되지 않으며, 뿌리는 즉시 고유의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다. 베이스와 톱, 미들 노트로 이뤄진 일반적인 향수와 달리 한 가지 향으로 이루어졌으며, 향의 지속성이 퍼퓸과 비슷해 오트리플만의 깊고 은은한 향기를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다. 상쾌한 느낌을 주는 중성적이고 이국적인 향수이며, 마치 바닷가 야생 이끼의 향을 맡은 듯 싱그러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불리 1803 오트리플 향수(리컨 데코스) 75ml 20만5천원.**

**불리 1803 포미드 콘크리트 핸드&풋 크림 75g 9만8천원.**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지켜주고 싶다면?** 케어미탈 수액을 풍부하게 함유한 밤 타입의 핸드&풋 크림으로 겨울철 건조해지기 쉬운 손과 발을 촉촉하게 만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오랜 시간 보호해주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다. 시야버터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촉촉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바꿔주고 세시미 시드 오일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해 산뜻한 사용감과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STEP3 홀리데이 스페셜 패키징 서비스로 단 하나뿐인 선물을 완성한다**

불리 1803의 선물 아이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홀리데이 리미티드 핸드메이드 서비스와 캘리그래피 서비스로 마무리한다. 불리 1803의 홀리데이 리미티드 핸드메이드 서비스는 레드, 그린, 골드 등 홀리데이 분위기에 맞는 컬러와 소품을 이용한 패키징 서비스로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특별한 선물을 완성하기에 이상적이다. 여기에 불리의 캘리그래피스트가 고풍스러운 글씨체로 원하는 문구를 원하는 곳에 직접 써주는 캘리그래피 서비스까지 더해지면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탄생하는 동시에 진정된 불리 1803 제품이 완성된다. 이와 함께 청담 부티크에서 사용 수평방 비누와 아세이트 쿵브 등 액세서리류를 구매할 경우, 원하는 문구 또는 이름을 새겨주는 인그레이빙 서비스도 만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야말로 세상에 하나뿐인, 진정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든다. **고객에 더 서비스**







# a great Challenge

몽블랑 코리아 최초의 컬래버레이션은 브랜드 모델이자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 박서준과 함께했다.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은 메종의 심벌과도 같은 블랙 앤드 화이트 컬러의 가죽 제품에 편안한 도트 패턴을 입혀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1906년 창립한 몽블랑은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 정신으로 당대의 트렌디한 오피스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필기 문화를 만들어왔다. 타자, 컴퓨터를 거쳐 모바일 시대로 들어선 지금까지도 중요한 자리에서 사용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으로 변함없이 몽블랑 필기구가 선택받는 이유다.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며 필기구와 시계, 레더 제품, 액세서리, 향수 및 아이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 정신과 명품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몽블랑. 몽블랑은 세계 곳곳에서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을 찾았다. 그 결과 필기구는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시계는 스위스 유라 지방의 로르클과 빌라레에서, 그리고 레더 제품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만든다. 이 중에서도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몽블랑 가죽 제품은 설명이 필요 없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레더의 믿을 만한 품질, 현대적이고 모던한 감성, 그리고 편리한 기능성 덕분에 성별, 나이,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이번 가죽 제품을 바탕으로 몽블랑은 울가를 코리아 마켓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획했다. 바로 몽블랑 코리아 최초로 컬래버레이션 컬렉션을 시도한 것. 그것도 지금 가장 주목받는 배우 박서준과 함께 말이다. 몽블랑 코리아의 모델이기도 한 박서준은 이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을 위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쾌하고 안정감 있는 도트 패턴을 선택했고, 몽블랑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인 백팩과 벨트, 지갑 등 여섯 가지 레더 제품에 그 패턴을 입혔다. 몽블랑이 1926년부터 지금까지 선보여온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한 모던한 사티리얼은 오래 사용해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탄탄한 제품이라 한국 고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는데, 이번 캡슐 컬렉션은 이탈리아 가죽 공방에서 장인의 손으로 만든 이 사티리얼 라인에 도트 패턴을 입힌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이다.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은 11월 초 롯데백화점 본점 팝업 스토어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고, 현재는 전국 몽블랑 백화점 매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 몽블랑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자층으로 떠오르면서 세대를 대표하는 박서준과의 협업으로 브랜드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고자 이번 컬렉션을 기획했다.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랑받은 몽블랑 레더 라인 중에서 한국에서만 단독으로 출시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기능과 혁신, 품질 및 스타일의 상징이 된 몽블랑.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자신 있게 고객을 만나는 몽블랑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문의 02-1670-4810 객원 에디터 남자현

© sponsored by MONTBLANG



© sponsored by volkswagen



# welcome to the Art:eon

좋은 디자인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쁨이라고 했는가. 특히 우리네 일상과 함께하는 기계 미학의 결정체인 자동차 세계에서 디자인의 '올림'은 남다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우아한 카리스마가 시선을 절로 사로잡는 폭스바겐의 새로운 아심작 아테온(The new Arteon)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세단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훌륭한 디자인 미학을 뽐낸다. 차,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표방하는 이 플래그십 세단의 매혹을 몸소 느껴보고 싶다면 다채로운 스토리를 품은 브랜드 공간이자 팝업 스토어인 'The Art:eon'이 기다리고 있다.

자동차라는 사물의 유혹이 치명적일 수 있는 건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일 것이다. 의식주행 물건처럼 현대인의 일상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구이면서도 이처럼 이미지의 힘이 강하고 지속적인 존재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내 차를 고를 때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스타일과 감성 코드를 찾는 데 까다로워지는 건 당연한 일일 터. 내로라하는 브랜드들도 고유의 경쟁력과 디자인 언어를 간직하되 변하지 않는 매력을 지닌 작품을 내놓으려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 폭스바겐의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 아테온(The new Arteon)은 이미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실뿔 지수가 높은 기대작'이다. 날렵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함이 묻어나는 독특한 카리스마 덕분이다. 폭스바겐에서도 천편일률적인 국내 대형 세단 시장에 새바람을 몰고 올 '얼굴마담' 모델로 아심 차게 밀고 있다. 80년이 넘는 브랜드 역사상 '제일 아름다운 세단'이라 자신했 정도다.

### 다면적인 매력을 품은 폭스바겐의 아심작

클래식 스포츠카의 디자인에 패스트백 모델의 우아함, 최신 안전 기술까지 모두 결합한 플래그십 프리미엄 세단인 아테온. 언뜻 보기에도 날렵한 맛이 있으면서도 브랜드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는 문어처럼 얹어지는 이 플래그십 세단은 폭스바겐 디자인 언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 일단 차체의 비율이 주는 쾌감이 있다. 2,840mm의 롱 휠베이스와 4,860mm의 전장, 그리고 각각 1,870mm, 1,450mm(2.0TDI, 190마력, 전륜구동 베이스 모델 기준)에 이르는 전폭과 전고로 다이내믹한 비율을 자랑한다. 이는 가로 배치 엔진 전용 플랫폼인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해 공간 창출이 용이해진 덕분이라고. 또 전면부 디자인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기능케 해주는 주 요소다. 발광다이오드(LED) 헤드라이트와 주간주행등은 보닛과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롬 크로스바와 결합해 스포츠카 디자인을 떠올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동급 모델 대비 넉넉한 뒷좌석 레그룸을 갖추었으며, 적재 공간은 최대 1,557L까지 확장 가능하다(기본 563L). '작명'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난다. '아테온'은

'art'와 영감을 시간을 뜻하는 'eon'의 합성어. 예술품에 비할 정도로 뛰어난 작품성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 '디아테온' 팝업 스토어, 연말의 도시 풍경을 수놓을 체험 공간

아테온의 작품성을 제대로 평가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건물을 감싸고 있는 이색적인 파스텔과 다양한 스토리도 채운 내부의 조화가 인상적인 팝업 스토어이자 체험 공간인 '디아테온(The Art:eon)'을 서울 신사동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뤄진 이 공간에 들어서면 1층에서 한눈에 시선을 잡아끄는 아테온의 자태를 접하고 감상할 수 있으며, 갤러리, 카페, VR 스튜디오, 레스토랑 등 층마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즐겨볼 수 있는 공간이 다채롭게 자리한다. 또 아테온의 주요 고객층을 위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클래스도 진행한다. 단지 자동차 애호가만이 아니라 풍부한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에디터 고성연



## SPECIAL INVITATION

### <스타일 조션일보>와 폭스바겐코리아가 함께하는 특별한 초대

2018년 12월, 폭스바겐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The new Arteon'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 & 라이프스타일 하우스, 'The Art:eon'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폭스바겐이 전하는 차,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세요.

◆ 장소 The Art:eon(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31) ◆ Opening Hours 월~일요일 11:00~21:00(2018. 12. 7~ 31) ◆ 문의 02-3446-1207

※ 보다 자세한 하우스 소개는 QR코드 스캔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디아테온' 검색해 '디아테온' 모바일 웹사이트(www.theart:eon.com)를 참고주세요. 교통이 혼잡한 구간이오니 기금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ouisvuitton.com](http://louisvuitton.com)

LES PARFUMS **LOUIS VUITTON**